



11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야권 통합 결의와 수임기구 지정 심의 의결을 위한 민주당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대의원증 위조'를 주장하며 몸싸움 끝에 대회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열망... 정당정치 몰락

을 정치권은 '안철수'가 최대의 화두였다.

'안철수 현상'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형성됐다. 무상급식 찬반투표에서 시작된 국론 분열의 와중에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고 그 중심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섰다.

당시 안 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한 순간에 거물급 인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안철수 현상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율 5%도 안 되는 시민운동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에게 양보했다. 그의 지지율은 박 상임이사에게로 옮겨져 한 순간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제치게 됐다.

처음 안철수 현상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전체 기성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박원순 당시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벌인 결과, 참패한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이었다.

이와 함께 안 원장은 유력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을 무너뜨렸다. 한나라당은 희망이 없고 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국민 사이에 확산한 것이다. 이는 기성정당의 몰락을 예고했다.

안 원장의 깜짝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안철

회고 2011

1 안철수 현상

- 2 '도가니' 충격
- 3 기아차 질주
- 4 영육의 5·18
- 5 야권통합
- 6 부실대학 퇴출
- 7 조선훈 총장 선거 파문
- 8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 9 풍성한 국제행사
-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수연구소 주식 지분(37.1%) 중 절반(1500억 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이후 안 원장은 박 전 대표와 1대1 대결을 가졌했을 때 단 한번도 지지율을 정도로 지지율은 더욱더 올라갔다.

이같은 '안풍'은 여야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정치권 전체에 비상을 끌어 정계개편으로 이어졌다. 보수층에서는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이 새로운 보수를 보여 주자며 신당창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란 대형 악재를 만난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계개편의 회오리를 피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

주노동당 등이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소통합을 완성했으며,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제 시민사회인사들이 함께하는 통합야당 만들기에 진력하고 있다.

안풍이 탄생한 이유는 무엇보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비롯됐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 기대와 달리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청년 실업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자와 대기업만 위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국민은 희망을 잃었다. 야당도 정치투쟁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지 못하자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것이 '안철수'였다.

그는 국민 특히 기성정치에 실망한 20~40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줬다. 의사 안철수가 스스로를 버리면서 얻었던 것들이 국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더욱이 그는 이념·정치지향적이지 않고 상식의 수준에서 국민과 소통했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이 잦장 속에 태풍에 그칠지, 실제 태풍이 될지는 안 원장의 향후 행보와 현 정치권의 행보에 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안 원장은 내년 대선까지 계속 주변에서 정치 입문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야권이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으나 여부가 안 원장의 정치 입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과반 시비’ 野통합투표 대혼란

민주 전대 의결 정족수 논란...긴급 당무위 소집

통합을 결의하기 위해 11일 개최된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가 찬반 투표까지 거친 끝에 의결정족수 논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 <관련기사 3번>

특히, 이날 임시 전당대회에서는 통합 찬반을 놓고 곳곳에서 몸싸움과 고성아 오가는가 하면 의결 정족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통합의 감동이 크게 퇴색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통합(합당) 결의안'을 상정한 뒤, 찬반 투표를 실시해 통합을 결의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문제로 저녁 8시30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임시 전당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1만562명 가운데 5천814명이 등록 이후 입장, 참석 인원으로만 보면 의결 정족수(재적 대의원의 50% 이상)를 넘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는 전체 대의원의 48% 가량인 5081명이 참여하는데 그쳐,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권표'에 해당한다며 통합이 결의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통합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인원만을 정족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통합 결의가 무산됐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 논의에 나섰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3번으로 계속

수시충원합격자도 정시 지원 금지

2013학년도 입시 전형...62.9% 수시 선발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수시 최종합격자는 본인의 대학 등록의사와 무관하게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관련 기사 7번>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교대·산업대 포함)의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최초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올해에는 수시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을 금지했고 충원 합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시 지원이 가능했다.

2013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 5695명으로 2012학년도보다 7035명(1.8%)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62.9%인 23만6349명을, 정시모집에서 37.1%인 13만9346명을 선발한다. 수시 비중은 올해보다 0.8%p 늘었다. 서울대는 올해 60.8%인 수시모집 인원을 내년 79.4%로 늘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입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총선 예비후보 13일부터 등록 광주·전남 입후보자 179명

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4개월간의 선거전이 사실상 막을 올린다.

<관련기사 5번>

11일 광주·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20곳(광주 8곳·전남 12곳) 국회의원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는 179명(광주 80명·전남 9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140명 가량이 1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권 물갈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세 불이에 나설 계획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개설해 간판

과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어깨띠를 메고 배우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선거구 내 가구수 100분의 10만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전자우편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2학년도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경영자과정 & 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 모집안내

-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 지원자격 |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 주요 기업체의 임원, 주요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포함)의 기관장에 해당하는 자, 전문직 및 직능별 대표자, 각 군의 장성, 기타 수강능력을 갖추었다고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수강기간 | 2012. 3. 1 ~ 2013. 2. 28 (1년)
- | 강의시간 | 주 1회 (월요일 야간)

경영자과정 모집안내

- | 모집인원 | 100명 내외
- | 지원자격 | 지역사회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및 기업체의 임직원, 중간공무원 및 국군장교, 기타 수강능력을 갖추었다고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수강기간 | 2012. 3. 1 ~ 2013. 2. 28 (1년)
- | 강의시간 | 주 1~2회 (화, 수요일 야간) ※ 강의요일과 시간은 교과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사항

- | 강의장소 |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강의실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학력제한 없음)
- | 원서교부 및 접수일 | 2011. 11. 1(화) ~ 2012. 1. 13(금)
- | 원서교부처 및 접수처 |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TEL., 062-530-1508)
원서는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http://mba.chonnam.ac.kr)
•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 문의전화 |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TEL., 062-530-1508)

지식기반사회의 선두주자!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최고의 강사진, 현대적 강의시설, 실무지향적 교육내용으로 우리지역 경영자 양성의 산실임을 자부합니다.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귀하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NO.1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NU GRADUATE SCHOOL OF BUSINESS